

# 경제동향

## 요약

**고용**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**생산** 제조업지수/출하·재고지수/서비스업 생산지수

**소비** 대형소매점 판매액

**물가** 소비자물가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

장윤선 연구원 changyuns@si.re.kr

**부동산**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/주택월세가격

**금융**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설·부도/신용보증

**수출입** 수출입액/품목별 수출입/국가별 수출입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

최윤진 연구원 erdene@si.re.kr

## 경제동향 | 요약



## 고용

- 서울의 9월 취업자는 515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(0.4%) 증가
- 산업별 취업자는 건설업(9.6%)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크게 증가
- 임금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0.4%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2.2% 감소
- 고용률은 60.3%로 전년 동월 대비 0.2%p 상승, 실업률은 4.2%로 전년 동월 대비 0.3%p 상승



## 생산

- 서울의 9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7.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7% 증가
- 9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.6% 감소, 재고지수는 20.6% 증가하여 경기 둔화/하강 국면을 시사
- 2016년 3/4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5.5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.0% 증가



## 소비

-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4,14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.9%로 크게 증가하였으며, 전국(7조 3,596억 원)의 32.8%를 차지
- 2016년 3/4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109.9로 전년 동 분기 대비 5.0% 증가



## 물가

-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.9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3% 상승
- 여름 폭염과 추석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신선식품물가지수(17.6%)가 크게 상승했으며, 서비스물가지수(2.1%), 생활물가지수(0.3%), 상품물가지수(0.1%)도 모두 상승



## 부동산

- 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31% 상승한 102.0 기록
- 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17% 상승한 102.0 기록
- 서울의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2로 준전세의 상승폭이 확대되고, 월세와 준월세의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전월 대비 0.01% 하락



## 금융

- 서울의 9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60조 4,641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4% 증가
- 서울의 9월 가계대출 잔액은 257조 8,480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6% 증가
- 서울의 9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66조 1,804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4,908억 원 (0.9%) 증가,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.4%
- 서울의 9월 신설법인 수는 2,301개로 전월 대비 13.6% 감소, 부도법인 수는 14개로 전월보다 4개 증가
- 서울의 9월 보증지원금액은 852.8억 원, 보증지원건수는 3,707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1.6%, 0.4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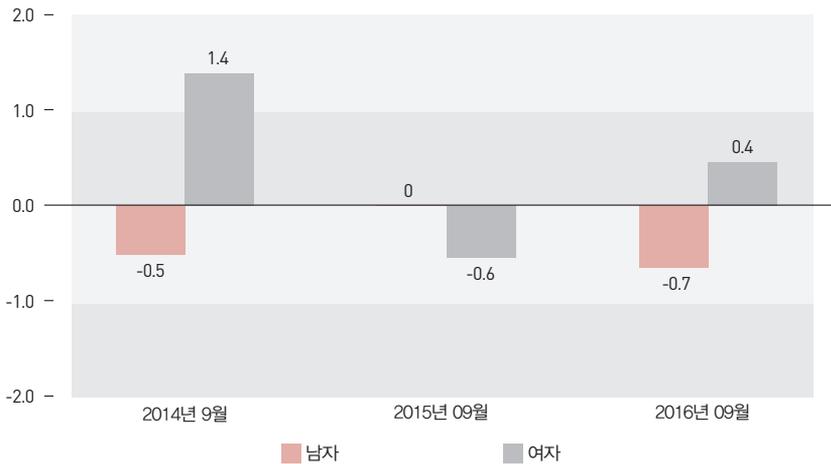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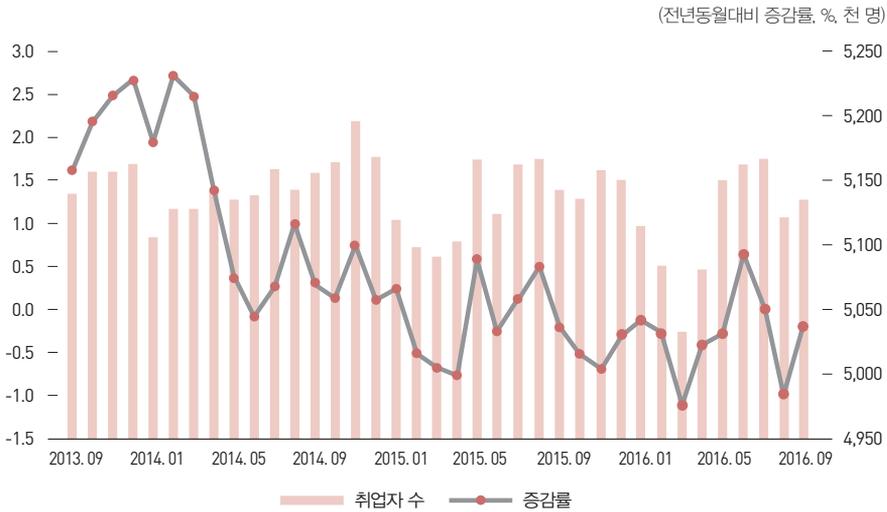
## 수출입

- 서울의 9월 수출액은 42.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4.3% 감소,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- 서울의 9월 수입액은 109.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.9% 감소, 품목별로는 원유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
# 취업자

## 서울의 9월 취업자 수는 513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2% 감소

- 서울의 9월 취업자는 513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(-0.2%)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(-0.7%) 감소, 여자는 229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(0.4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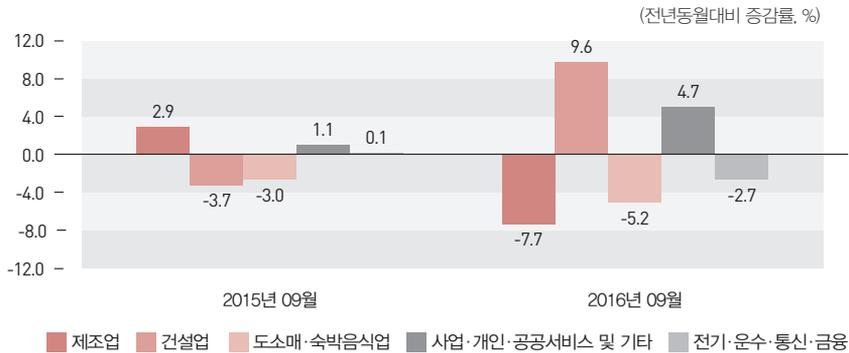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## 산업별 취업자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과 제조업에서 감소한 반면, 건설업은 증가

-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 7만 4천 명(-5.2%), 제조업 3만 9천 명(-7.7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2만 2천 명(-2.7%)이 감소한 반면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9만 7천 명(4.7%), 건설업 3만 1천 명(9.6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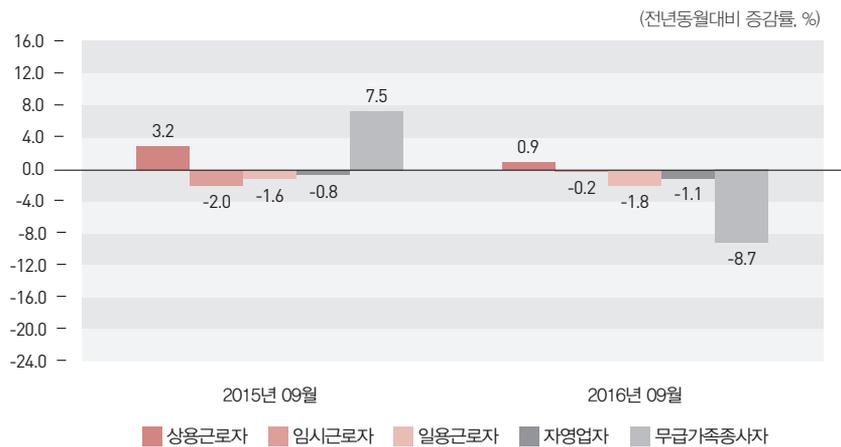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

## 서울은 9월에 임금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감소

-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 명(0.4%) 증가,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 명(-2.2%) 감소
-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만 3천 명(0.9%) 증가한 반면, 임시근로자는 3천 명(-0.2%), 일용근로자는 6천 명(-1.8%) 감소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 1천 명(-1.1%),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4천 명(-8.7%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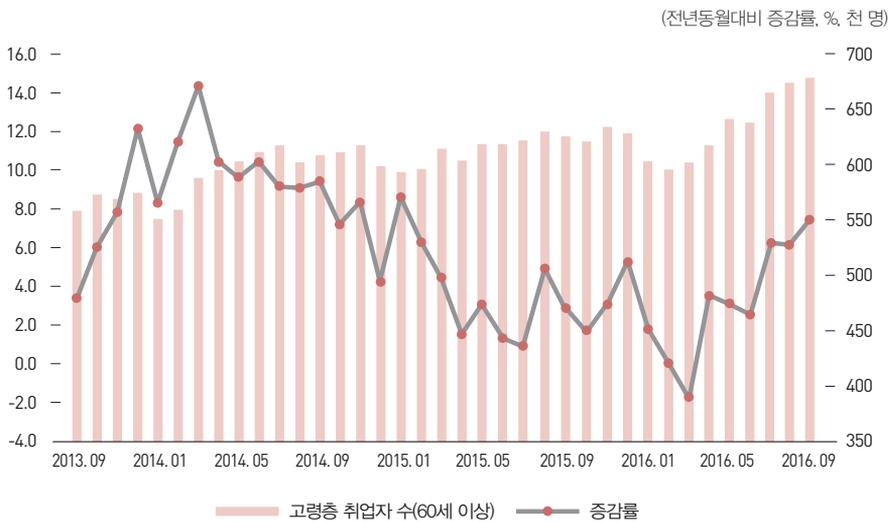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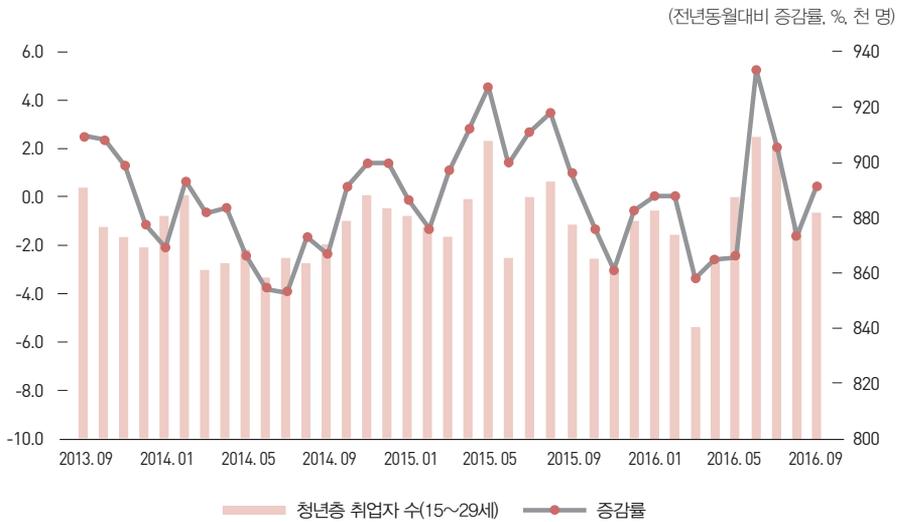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률

## 서울의 9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 수와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

- 서울의 9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 수는 88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4% 증가
- 서울의 9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수는 67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.6% 증가
- 올해 6월부터 고령층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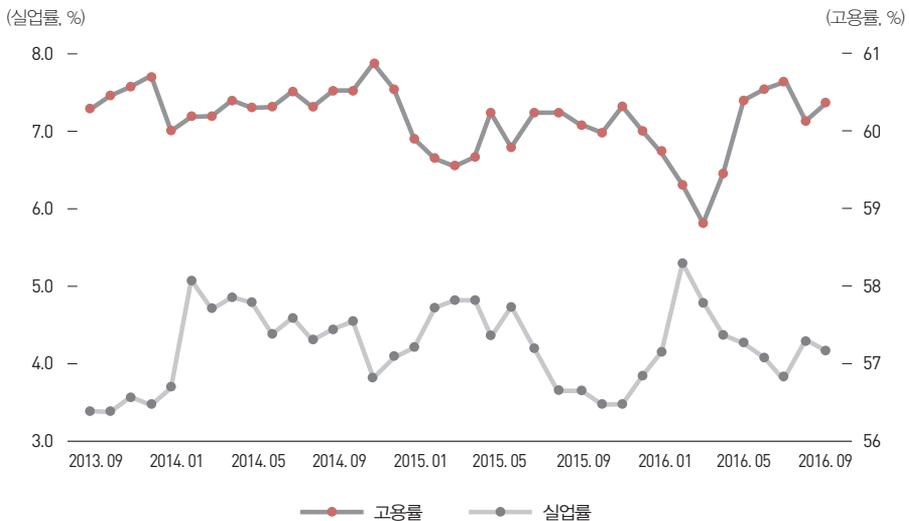
## 고용률 및 실업률

### 서울의 9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, 전국 대비 낮은 수준

- 서울의 9월 고용률은 60.3%로 전년 동월 대비 0.2%p 상승했으나 전국(61.0%)보다는 낮은 수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69.8%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, 여자는 51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5%p 상승

### 서울의 9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, 전국 대비 높은 수준

- 서울의 9월 실업자는 2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(9.3%) 증가
- 실업률은 4.2%로 전년 동월 대비 0.3%p 상승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4%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상승, 여자는 4.0%로 전년 동월 대비 0.3%p 상승
- 2016년 9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4.1%)에 비하여 0.7%p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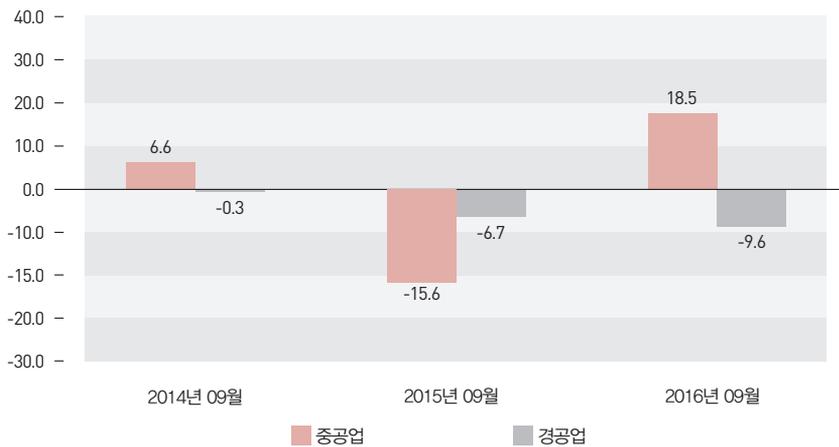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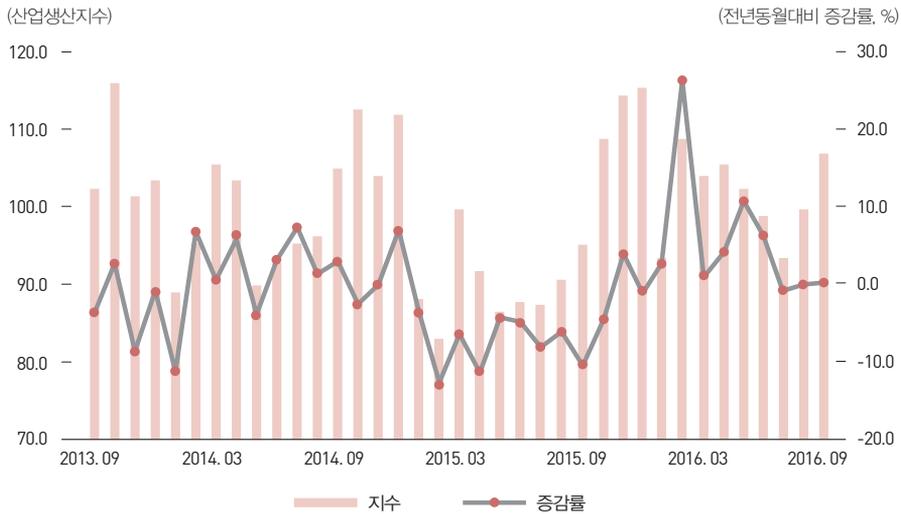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# 생산

## 서울의 9월 제조업생산지수는 0.7% 증가

- 서울의 9월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.7% 증가
- 전년 동월 대비 중공업 부문은 18.5%로 크게 증가한 반면, 경공업은 9.6% 감소
-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비금속광물(293.1%), 가죽 및 신발(59.7%) 등은 증가한 반면, 고무 및 플라스틱(-42.0%), 섬유제품(-15.2%) 등은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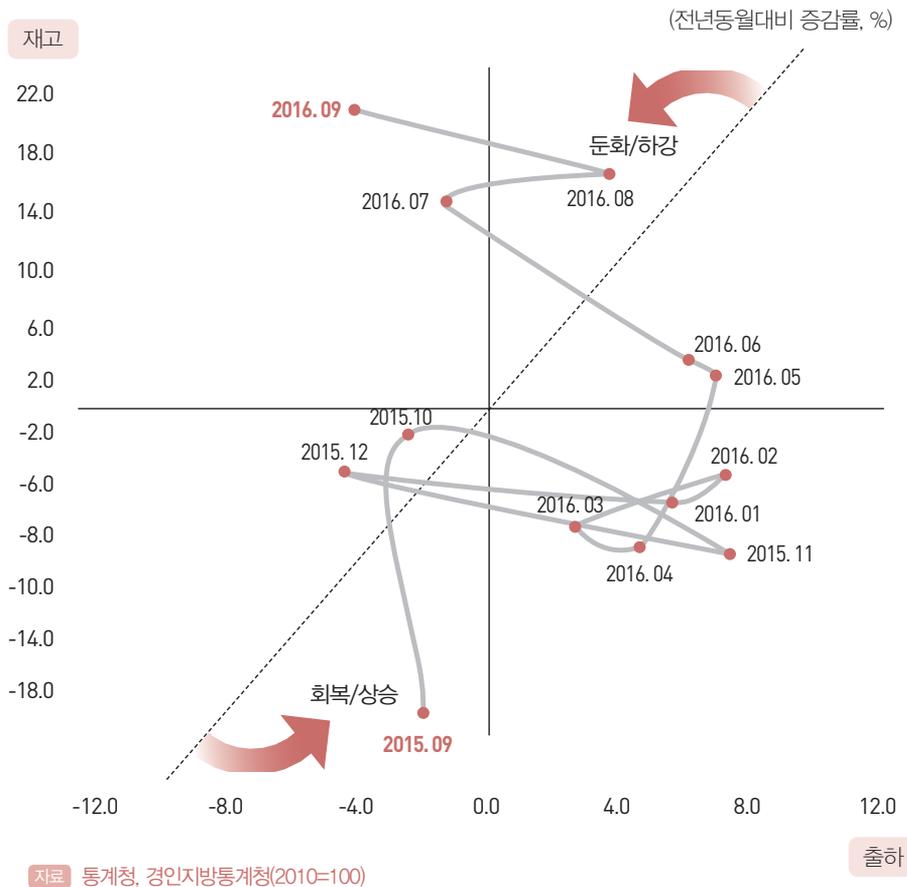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# 출하·재고 순환

서울의 9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3.6% 감소, 재고지수는 20.6% 증가하여 경기 둔화/하강 국면을 시사

- 서울의 9월 출하지수는 110.8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3.6% 감소
- 서울의 9월 재고지수는 157.8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20.6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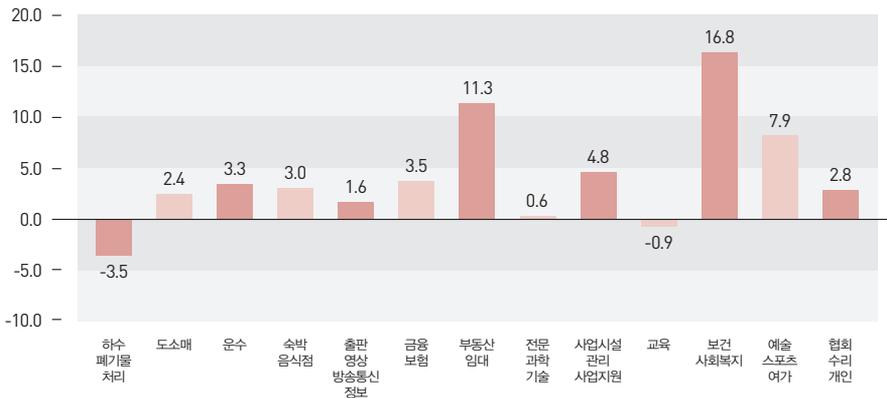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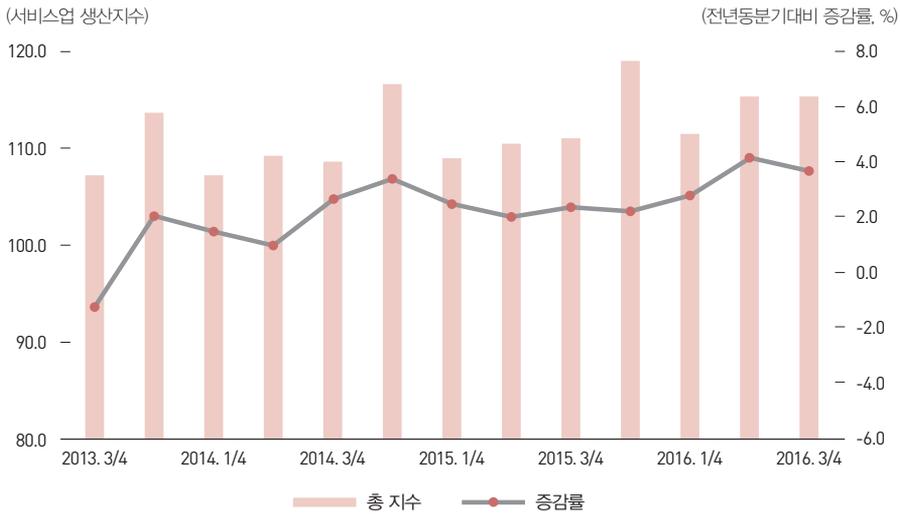


〈그림〉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# 서비스업·생산

서울의 2016년 3/4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5.5(2010=100)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.0% 증가

- 서울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13년 4/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가세를 보임
- 부문별로 보면 전년 동 분기 대비 보건·사회복지(16.8%), 부동산·임대(11.3%) 등은 크게 증가한 반면, 하수·폐기물처리(-3.5%), 교육(-0.9%)은 감소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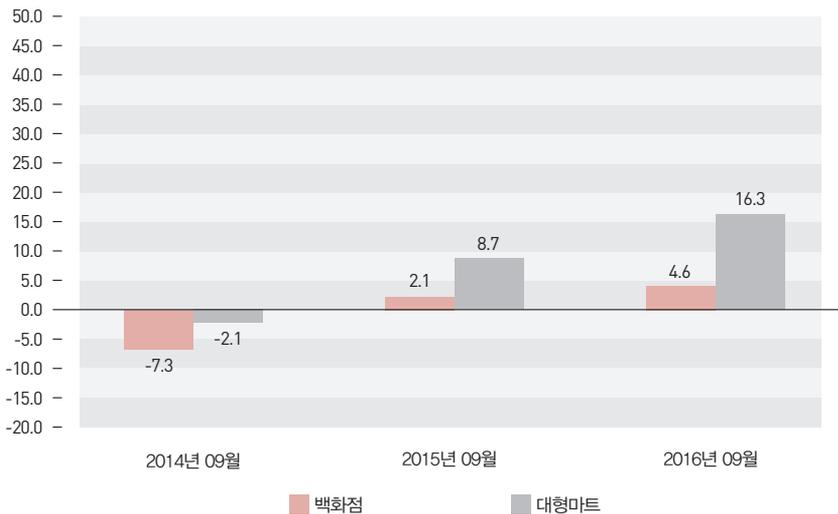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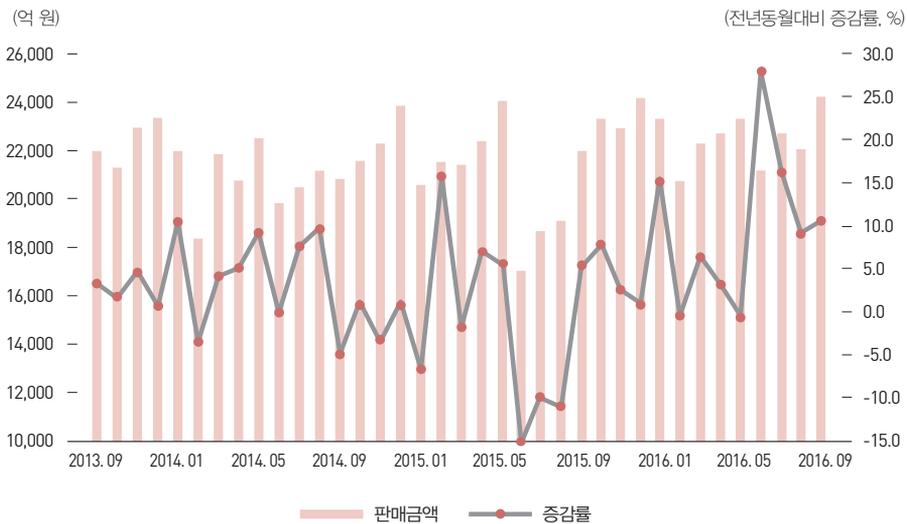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비스업 생산 추이 및 증감률

## 경제동향 | 소비

## 소비

##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0.9% 증가

-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4,141억 원으로 전국(7조 3,596억 원)의 32.8%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0.9% 증가
- 9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59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6% 증가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3,54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.3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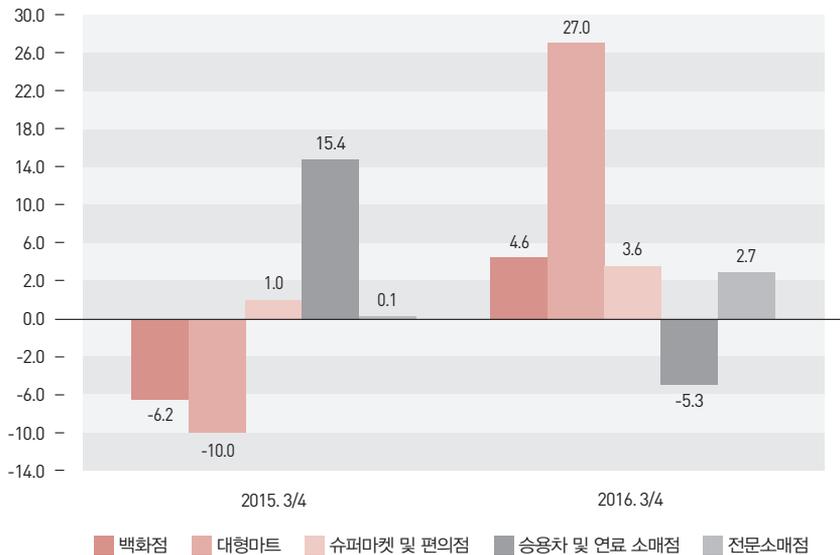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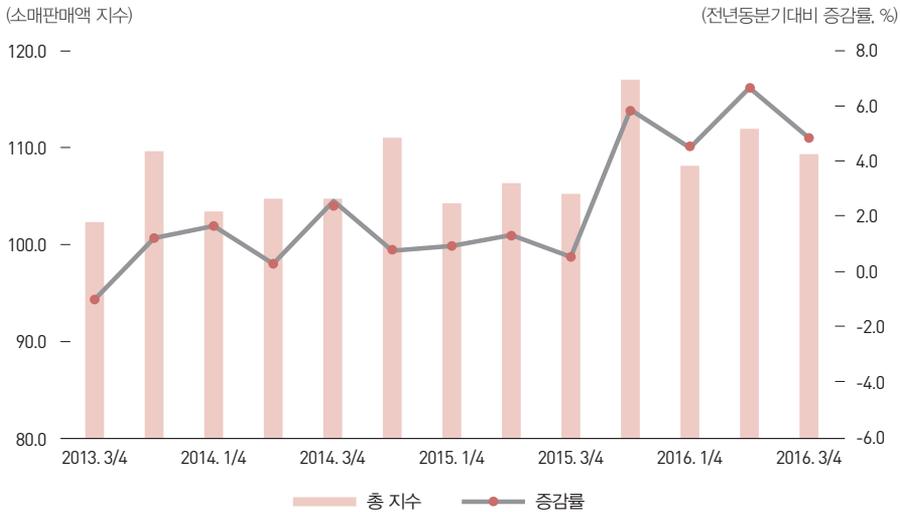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## 서울의 2016년 3/4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109.9로 전년 동 분기 대비 5.0% 증가

- 서울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2013년 4/4분기 이후로 전년 동 분기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
-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(-5.3%)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으며, 특히 대형마트(27.0%)에서 큰 증가율을 보임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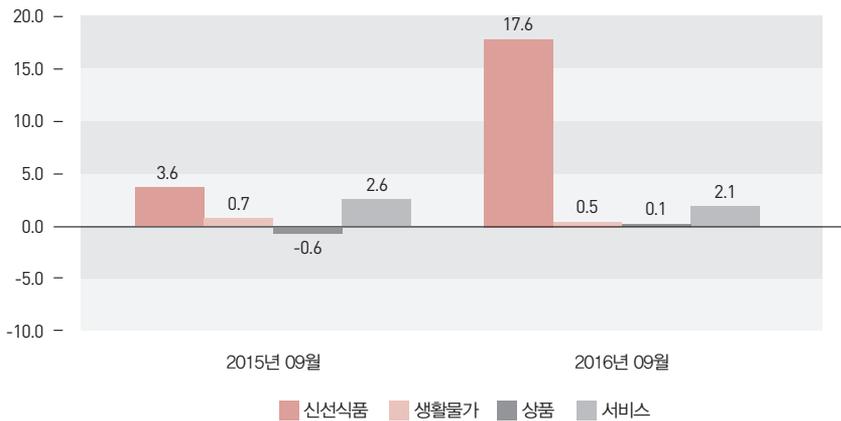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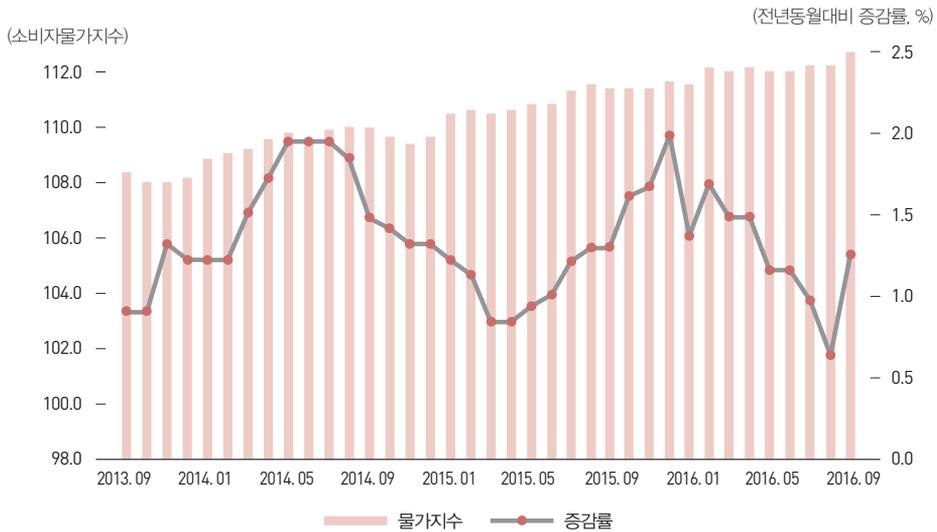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소매판매액 지수 추이 및 증감률

## 경제동향 | 물가

## 물가

##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.3% 상승

- 9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.9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3% 상승
-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신선식품물가지수(17.6%), 서비스물가지수(2.1%), 생활물가지수(0.3%), 상품물가지수(0.1%) 모두 상승
- 여름 폭염과 추석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신선식품물가지수가 높게 나타남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## 주택매매가격

### 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<sup>114</sup>는 전월 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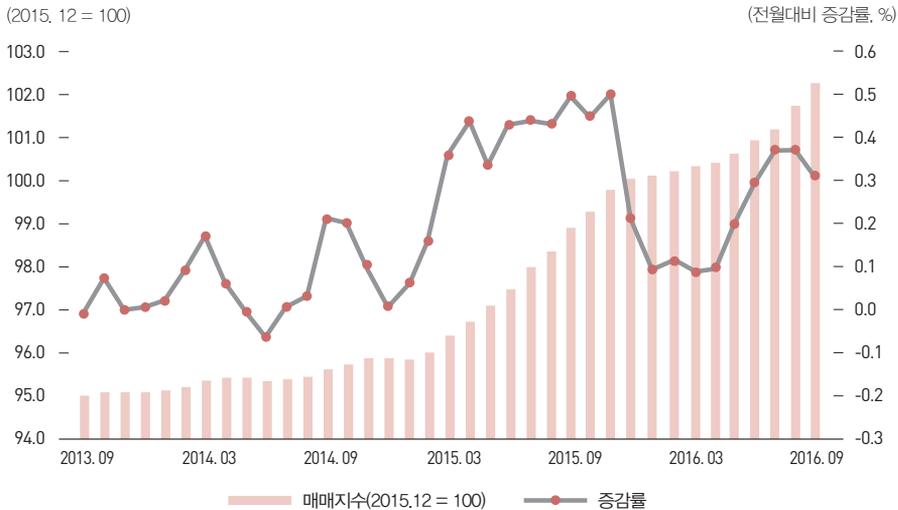
- 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2.0으로 전월 대비 0.31% 상승. 한강이남지역(0.37%)은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격 및 성공적인 분양과 강남지역의 개발 호재로 상승세 지속. 한강이북지역(0.24%)은 신분당선 연장 호재와 재건축단지 투자수요로 상승세 지속
  - 주요 상승지역: 강남구(0.59%), 서초구(0.56%), 양천구(0.48%)

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(2013.3→2015.12) 변경

### 서울의 9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,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

-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<sup>115</sup>(1,870만 원)은 전월 대비 1.58% 상승, 거래건수(10,898건)는 9.6% 감소
- 강남구(2.91%)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.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노원구(1,115건), 송파구(708건), 강동구(675건) 순임

주 부동산114



자료 KB국민은행

〈그림〉 서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### 수도권과 5개 광역시는 상승세 지속, 기타 지방은 상승 전환

- 전국의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.8로 전월 대비 0.14% 상승. 낮은 기준금리(1.25%)와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에도 신규 분양시장 호황으로 상승세 지속. 수도권(0.23%)과 5개 광역시(0.04%)는 3개월 연속 상승하고, 기타 지방(0.02%)은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

# 주택전세가격

## 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지수<sup>■</sup>는 전월 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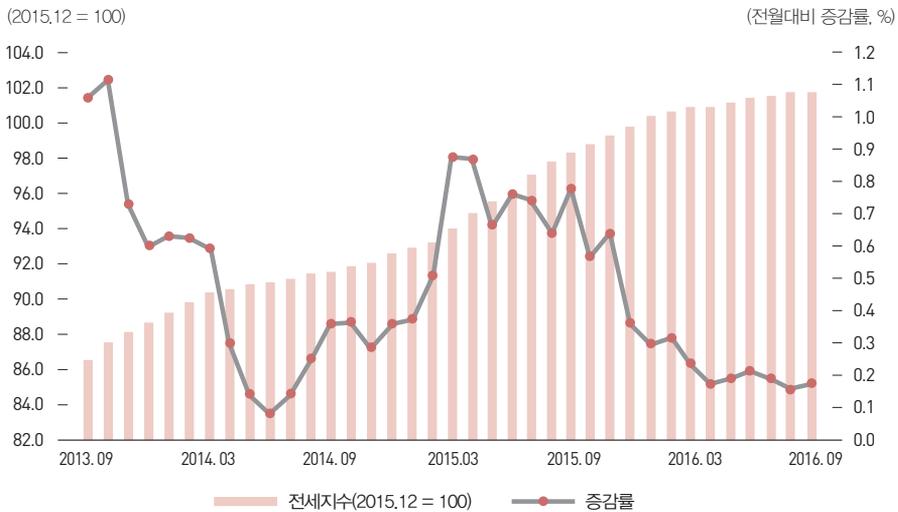
- 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2.0으로 전월 대비 0.17% 상승. 한강이남지역(0.08%)은 위례 신도시 등 신도시 입주물량 영향으로 낮은 상승세 유지. 한강이북지역(0.26%)은 재개발 이주 수요와 대학생 임차수요가 늘면서 상승폭 확대
- 주요 상승지역: 동대문구(0.39%), 서대문구(0.36%), 마포구(0.34%)

주 2016년 1월 자료부터 기준연도(2013.3~2015.12) 변경

## 서울의 9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,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

- 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가격<sup>■</sup>(1,294만 원)은 전월 대비 0.6% 상승, 거래건수(11,043건)는 7.8% 증가
- 서대문구(2.01%) 지역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. 거래건수는 노원구(884건), 송파구(872건), 강서구(814건) 순임

주 부동산114



자료 KB국민은행

〈그림〉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## 수도권과 5개 광역시는 상승세 지속, 기타 지방은 상승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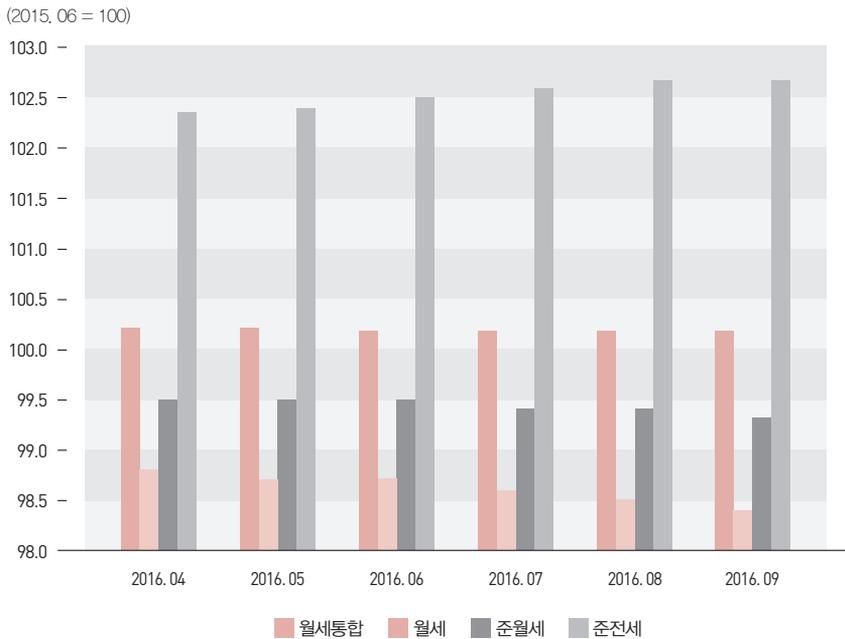
- 전국의 9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10% 상승한 101.1을 기록. 저금리 기조와 월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으로 상승세 지속. 수도권(0.15%)과 5개 광역시(0.04%)는 상승폭 유지, 기타 지방(0.03%)은 상승폭 확대

# 주택월세가격

## 서울의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

- 서울의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2로 전월 대비 0.01% 하락. '준전세'(0.06%)의 상승폭이 확대되고, '월세'(-0.07%)와 '준월세'(-0.04%)는 하락폭이 축소되어 월세통합은 전월 대비 하락폭 감소
- 한강이남지역(-0.06%)은 전세매물 부족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며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. 한강이북지역(0.00%)은 직장인 수요의 영향으로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종로구, 마포구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연립·다세대와 단독주택이 상승 전환되며 전월 하락에서 보합 전환

주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이면 '월세', 보증금이 전세금의 60% 초과하면 '준전세', 월세와 준전세 중간영역의 월세는 '준월세'로 구분



자료 한국감정원

〈그림〉 서울시 월세통합가격지수 추이

## 전국의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

- 전국의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0.1로 전월 대비 0.02% 하락. '준전세'(0.04%)는 상승폭이 늘었고, '월세'(-0.05%)와 준월세(-0.03%)는 하락폭 축소되어 월세통합은 전월 대비 하락폭 축소

## 경제동향 | 금융

## 가계대출

## 9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- 전체 대출금 잔액(660조 4,641억 원)은 전월 대비 0.4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6.7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545조 2,359억 원)과 비예금은행(115조 2,282억 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4%, 0.5% 증가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.7%, 11.5% 증가

## 9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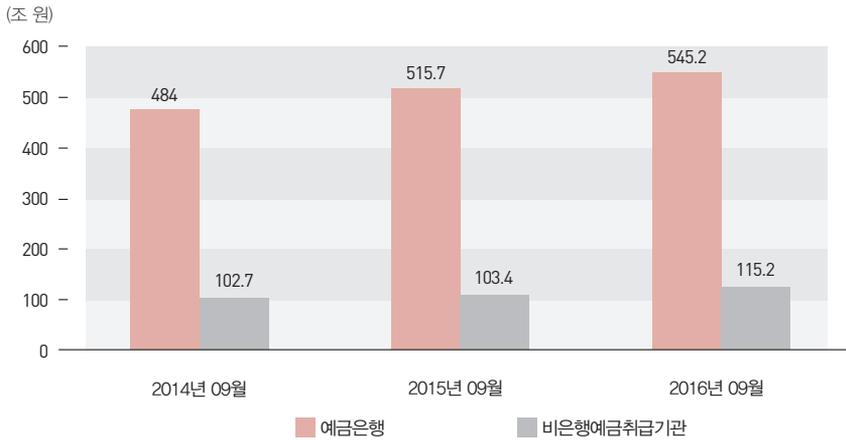
- 전체 대출금 잔액(1,868조 741억 원)은 전월 대비 0.7%, 전년 동월 대비 9.1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1,414조 2,320억 원)과 비예금은행(453조 8,421억 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5%, 1.2% 증가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.6%, 14.0% 증가



주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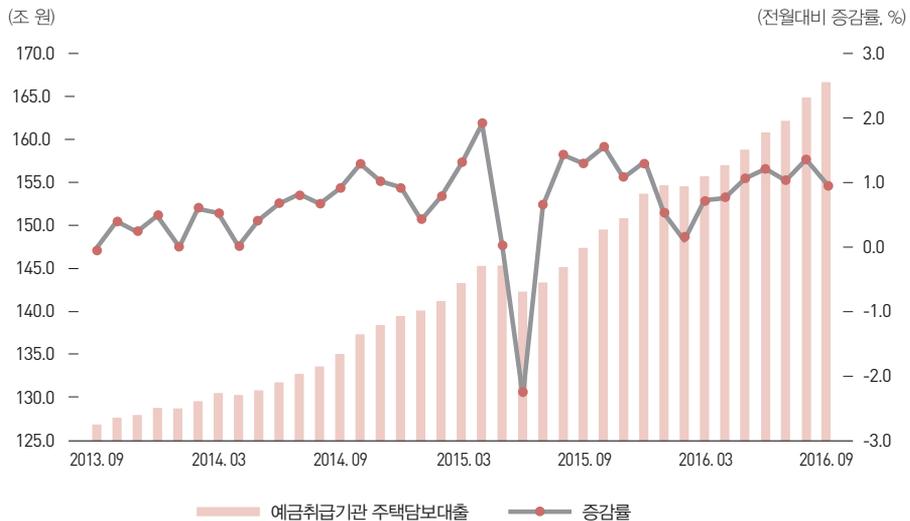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## 9월 중 서울의 가계대출 잔액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모두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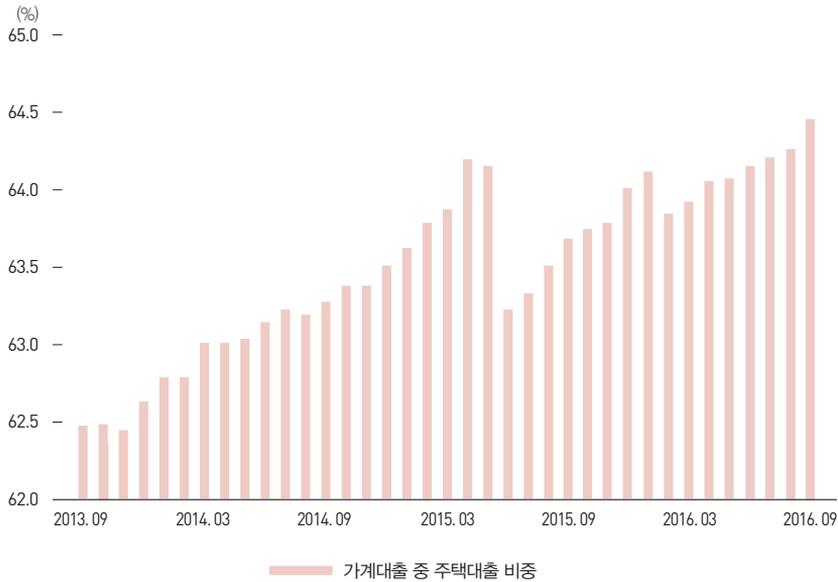
-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(257조 8,480억 원)은 전월(256조 3,644억 원) 대비 0.6% 증가
- 그 중 주택담보대출(166조 1,804억 원)은 전월(164조 6,896억 원) 대비 1조 4,908억 원(0.9%)이 증가하였고,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.4%



주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주택담보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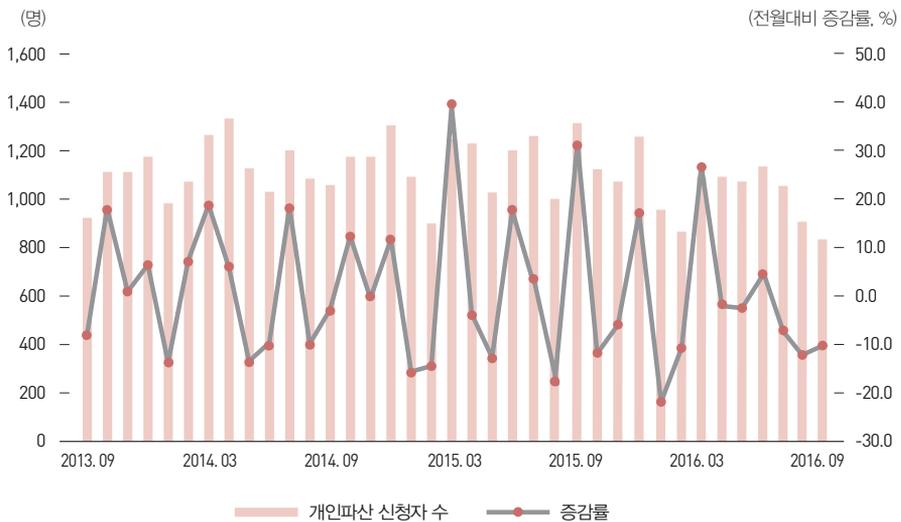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## 9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9월 개인파산 신청자(836명)는 전월(928명) 대비 9.9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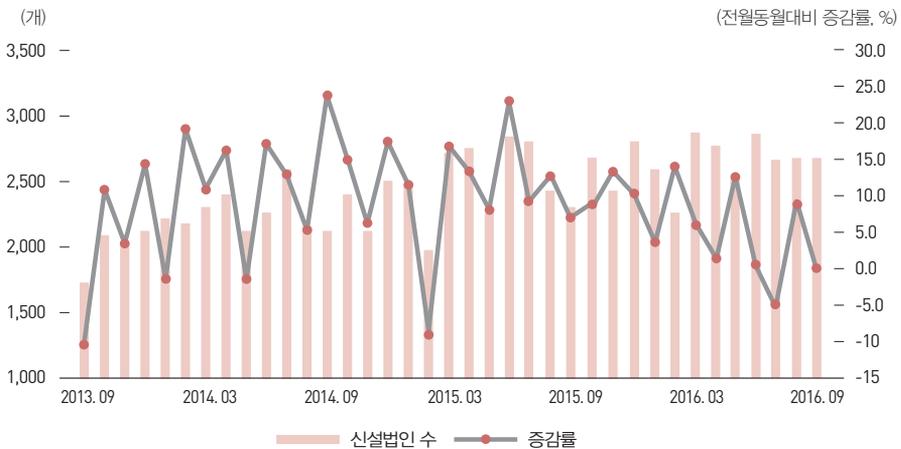
자료 대법원

〈그림〉 서울의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# 신설법인

## 서울의 9월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,301개로 전월 대비 13.6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0.6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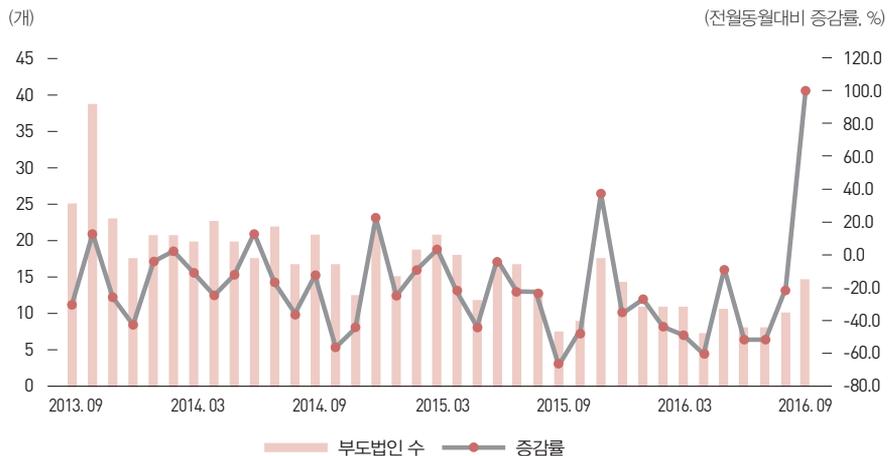


자료 중소기업청

〈그림〉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## 서울의 9월 부도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부도법인 수는 14개로 전월(10개) 대비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100.0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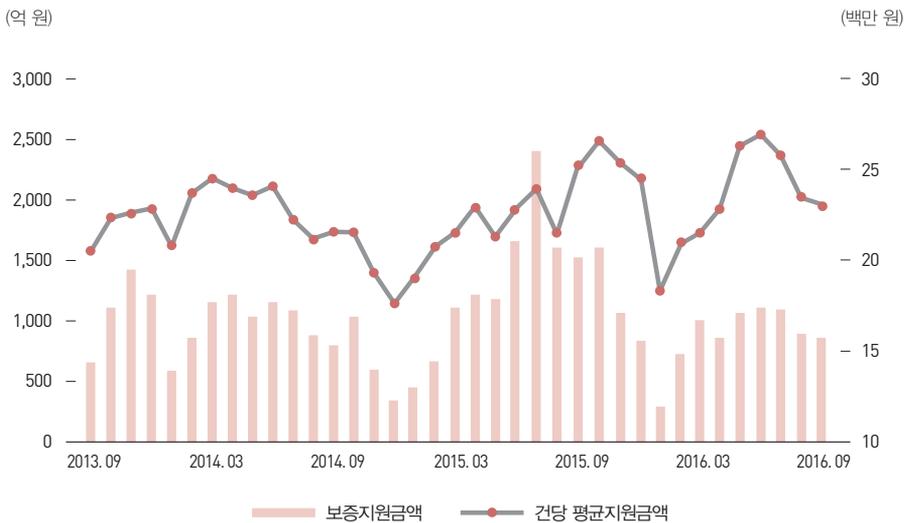
자료 금융결제원

〈그림〉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# 신용보증

## 서울의 9월 보증지원금액, 보증건수, 건당 평균지원금액 모두 감소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9월 중 852.8억 원 / 3,707건
- 보증지원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전월 대비 1.6% 감소, 0.4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4.6%, 40.1% 감소
- 건당 평균지원금액(2,300만 원)은 전월 대비 1.2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7.6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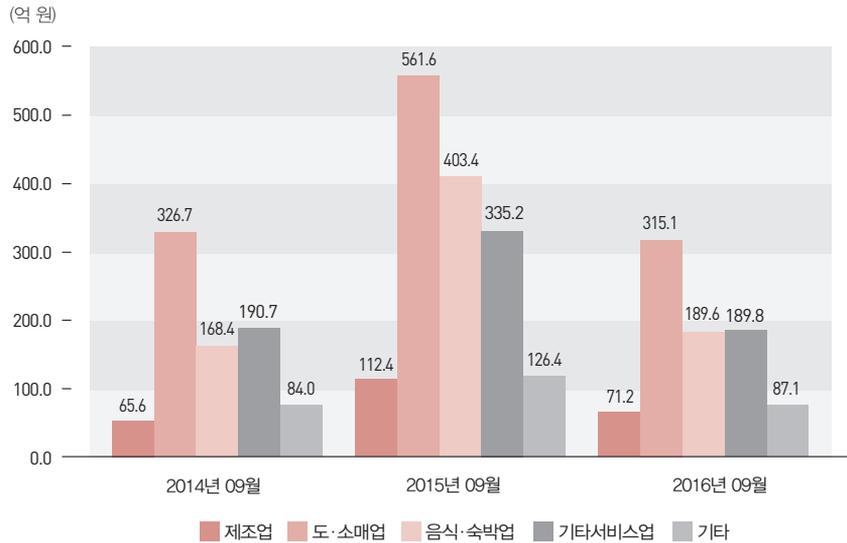


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서울시 신용보증 지원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 추이

## 전 업종에서 전년 동월 대비 보증지원금액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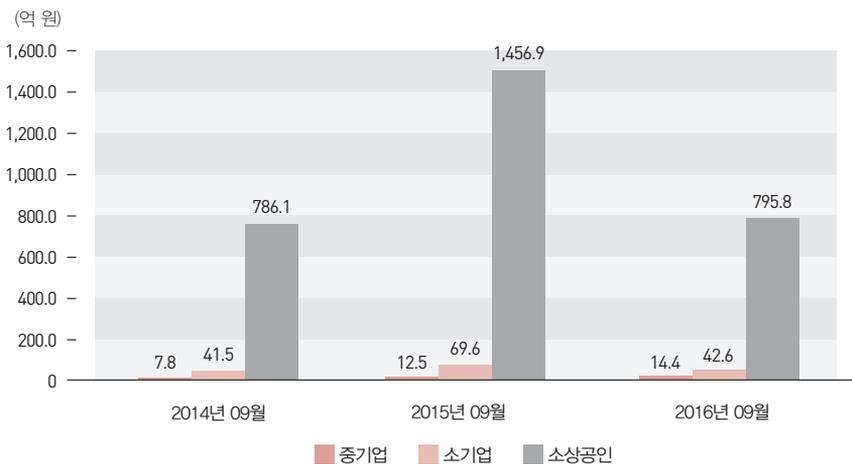
- 신용보증공급 비중은 금액 기준 도·소매업(36.9%), 기타서비스업(22.3%), 음식·숙박업(22.2%), 건수 기준 도·소매업(34.7%), 기타서비스업(27.3%), 음식·숙박업(22.2%) 순임
- 도·소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315.1억 원으로 전월 대비 2.4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43.9% 감소. 보증지원건수는 1,285건으로 전월 대비 3.9% 감소
- 기타서비스업의 보증지원금액은 189.8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3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43.4% 감소. 보증지원건수는 1,013건으로 전월 대비 2.2% 감소
- 음식·숙박업(189.6억 원), 제조업(71.2억 원)의 보증지원금액이 전월 동월 대비 각각 53.0%, 36.7% 감소



〈그림〉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##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은 줄고 중기업 보증지원은 증가

- 소상공인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2.4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45.4% 감소한 795.8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93.3%를 차지.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3,621건으로 전월 대비 1.0% 감소
- 소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0.0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38.8% 감소한 42.6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5.0%를 차지. 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75건으로 전월 대비 17.2% 감소
- 중기업 보증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256.6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14.8% 증가한 14.4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1.7%를 차지.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11건으로 전월 대비 450.0% 증가



〈그림〉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## 경제동향 | 수출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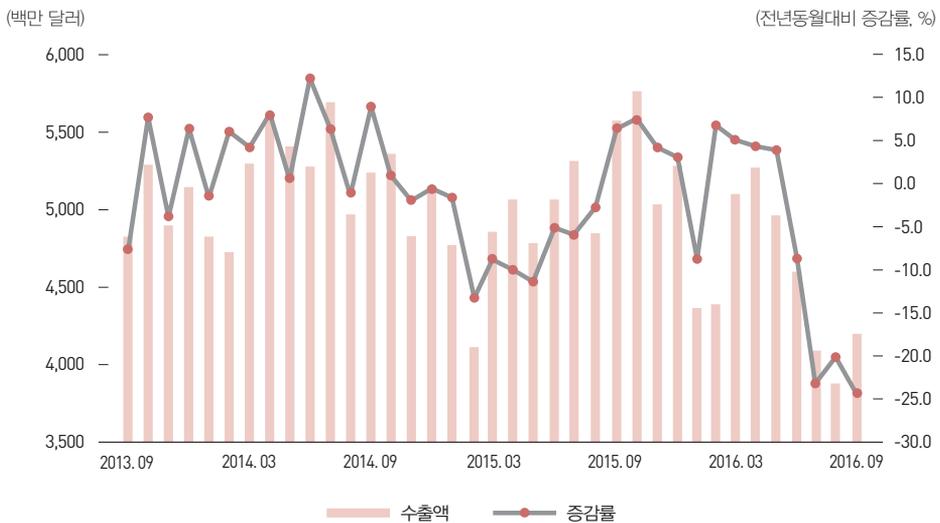
## 수출입

## 서울의 9월 수출과 수입은 모두 전년 동월보다 감소

- 서울의 수출은 42.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4.3% 감소하였고, 수입은 109.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.5% 감소
- 전국의 수출은 408.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.9% 감소하였고, 수입은 339.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.7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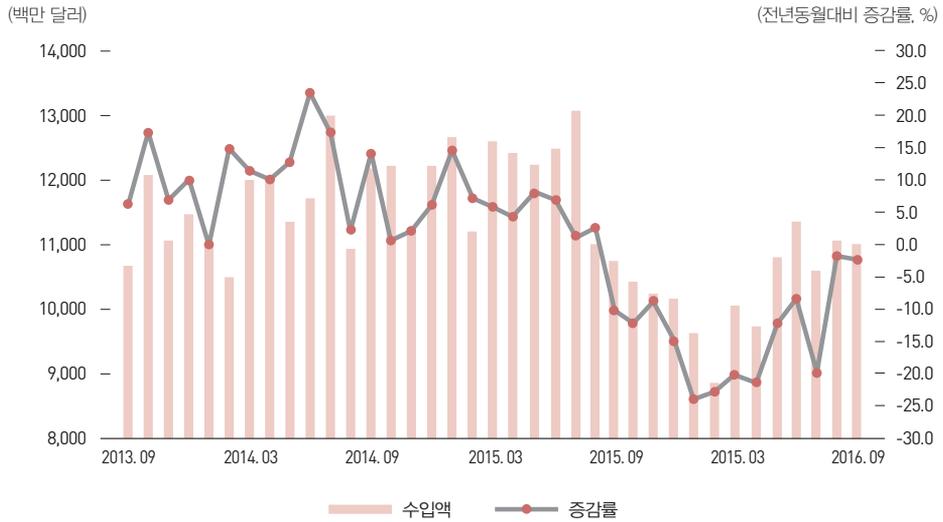
## 서울의 9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, 수입 1순위는 원유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(467백만 달러)이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반도체, 합성수지, 비누·치약 및 화장품, 고무제품 순임. 자동차부품 수출이 전월 대비 26.3% 증가한 반면, 합성수지, 고무제품 수출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원유(1,092백만 달러)가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의류, 자동차, 반도체, 석유제품 순임. 원유 수입이 전월 대비 43.6% 증가해 수입 1순위 품목을 기록했으며, 전월 1순위 품목이었던 자동차 수입은 전월 대비 6.4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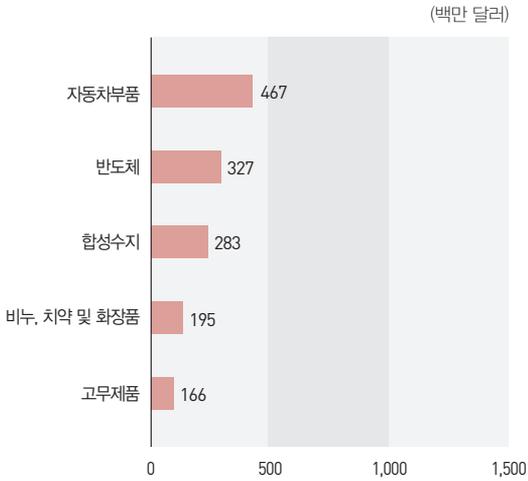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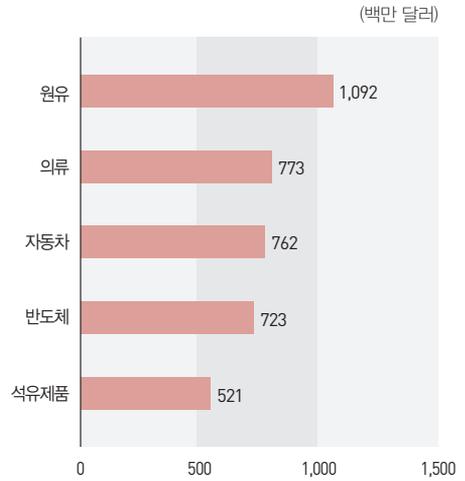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



자료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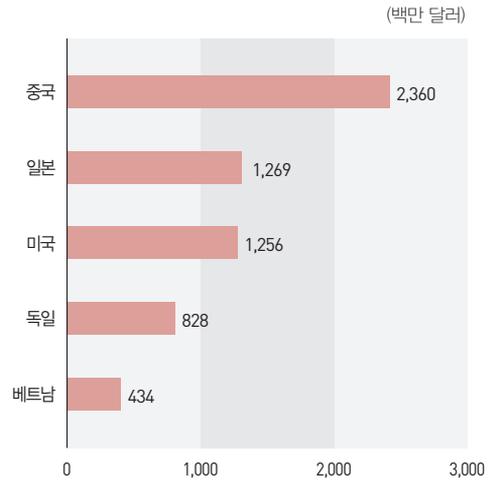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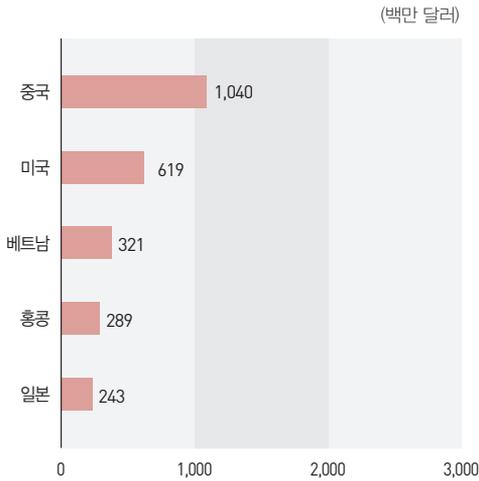
〈그림〉 9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

〈그림〉 9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## 서울의 9월 수출·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(1,040백만 달러)이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미국, 베트남, 홍콩, 일본 순임. 중국 수출은 전월 대비 18.8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16.4% 감소
- 주요 상대국 수출이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미국과 베트남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.4%, 20.3% 감소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(2,360백만 달러)이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독일, 베트남 순임. 중국 수입은 전월 대비 0.1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3.3% 감소
- 지난달보다 미국 수입은 줄고(-6.3%), 일본 수입이 늘어(10.1%) 일본 수입 비중이 확대됐고, 베트남 수입 확대(7.1%)로 베트남이 주요 수입상대국에 진입


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9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〈그림〉 9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## 자료출처
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9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9월 서울시 고용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6년 9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』
- 국민은행, 『2016년 9월 월간 KB주택가격동향』
- 대한민국 법원, 법원통계월보, 『<http://www.scourt.go.kr>』
- 부동산114, 『2016년 9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』
- 부동산114, 『2016년 9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전세가격』
- 서울신용보증재단, 『2016년 9월 신용보증동향』
- 서울특별시, 서울부동산정보광장, 『<http://land.seoul.go.kr/land>』
- 중소기업청, 『2016년 9월 신설법인동향』
- 통계청, 통계정보시스템, 『<http://kosis.kr>』
- 한국감정원, 『2016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』
- 한국무역협회, 무역정보네트워크, 『<http://stat.kita.net>』
-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, 『<http://ecos.bok.or.kr>』